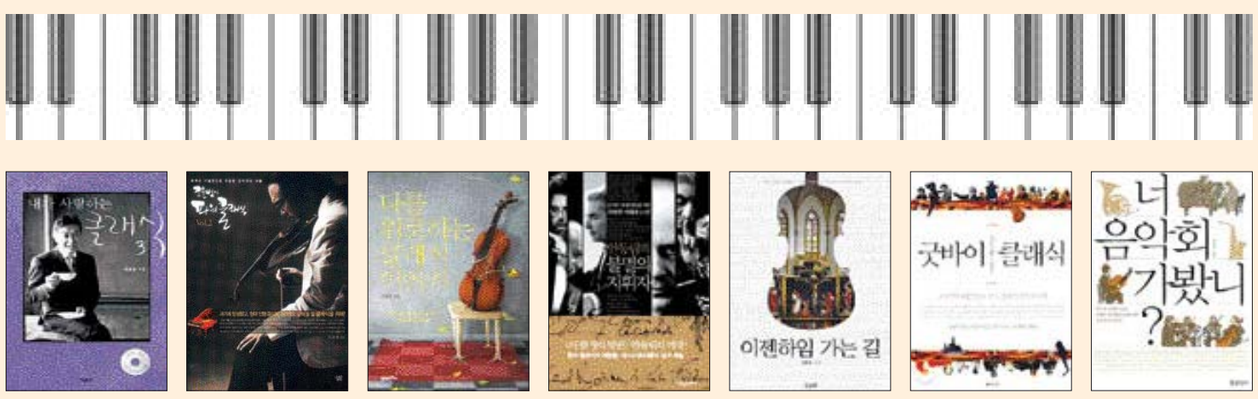

"클래식과 친구해요"

박종호·조윤범 등 클래식 서적 봇물

책에 등장하는 곡 음반 함께 내기도

최근 클래식과 관련한 다양한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신과 의사이자 클래식 전문 음반 가게 '풍월당' 주인장으로도 유명한 박종호씨는 최근 '내가 사랑한 클래식'(시공사)의 세번째 시리즈를 펴냈다. 박씨의 책은 클래식 음악에 얽힌 자신의 경험담과 음악적 지식을 적절히 녹여낸 글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는 그의 글은 책에 등장한 음악을 들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세번째 권을 읽고 나면 로시니가 12살 때 작곡했다는 '현악 소나타'나 정명훈과 피아니스트 루이스 바칼로프가 함께 한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세르케이 나카리아코프의 트럼펫으로 연주하는 '치고이네르 바이젠'을 듣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시리즈에는 책에 등장하는 12곡을 담은 음반도 함께 내놓았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아 꺼려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의 글쓰기가 마음에 든다면 '유럽음악축제 순례기' 이탈리아 기행문 '황홀한 여행' 등도 추천한다.

올해가 가기전 시리즈 3권과 음반 2장을 묶은 '내가 사랑하는 클래식' 애장본이 출간될 예정이다.

케이블 채널 '예당아트 TV'를 본 이들이라면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이라는 프로를 잊지 못할 것이다. 현악 4중주단 '콰르텟 엑스'의 리더이기도 한 조윤범이 진행한 클래식 강의는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유머감각, 강렬한 연주가 어우러져 인기를 모았다. 그의 스타성은 지난해 책 출간으로 이어졌고, 최근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Vol.2'(살림)가 나왔다.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등을 다룬 첫째권에 이어 이번 시리즈에서는 헨델, 파가니니 등의 음악 이야기를 담았다.

국내 음악팬들에게 '클래식 교과서'로 꼽히는 '이 한장의 음반'의 안동림씨 신작 '안동림의 불멸의 지휘자'(웅진지식하우스)는 토스카니니부터 번스타인까지 20세기 클래식사를 이끈 위대한 지휘자 34인을 다룬 책이다.

군더더기 없는 필체와 해박한 지식을 담은 저자의 글쓰기는 신뢰감을 준다.

진회숙의 '나를 위로하는 클래식 이야기'는 음악이 주는 치유의 힘을 소개하는 책이다. 베토벤 등 음악가들에 얽힌 이야기와 저자의 사연들을 통해 클래식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쇼팽의 '빗방울전주곡',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등이 담겼다.

'클래식 오딧세이', '영화로 만난 클래식'의 저자인 진씨는 현재 평화방송 '진회숙의 일요스페셜'을 진행하고 있다.

그밖에 KBS 클래식 FM의 'FM 실황음악'(밤 10시)을 진행하는 정준호씨가 쓴 '이젠하임 가는길'(산책자)이나 클래식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했던 유정아가 쓴 '마주침-아나운서 유정아의 클래식 에세이'(문학동네), '베토벤 바이러스-서희태의 클래식 토크'(MBC 프로덕션) 등도 눈길을 끈다.

클래식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책들도 있다. 조우석씨가 펴낸 '굿바이 클래식'(동아시아)은 다분히 논쟁거리를 제공하지만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예술과 권력의 상관관계를 그린 베로니카 베치의 '음악과 권력'(컬처북스)도 읽을 만하다.

'음악회 가 봤니'(한길사)는 클래식 음악에 입문서로 제격이다. 경주고전음악감상회를 꾸리고 있는 류준하(울산고 지리교사)가 펴낸 이 책은 음악백과사전 차선생, 클래식 마니아 배도반, 음악감상 초보자 류수연 세 사람이 실제 음악감상회에서 나눔 직한 대화들을 글로 풀어 입문서이다. 또 '금난새와 떠나는 클래식 여행 1·2'(생각의 나무)는 스테디 셀러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장중하고 아름다운 화음의 세계로"

광주시립합창단 내일 문예회관서 헨델 '메시아'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 연주회 '즐거운 합창'도

구천 단장

박호진 단장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은 헨델의 오라토리오(종교적·도덕적 내용을 가사로 한 대규모 종교음악) '메시아'를 무대에 올린다. 5일 오후 4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베토벤의 '합창교향곡'과 함께 연말 가장 사랑받는 작품인 헨델의 '메시아'는 하이든의 '천지창조', 멘델스존의 '엘리아'와 함께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꼽힌다.

아름다운 서창과 폭 넓은 아리아, 웅장한 합창이 어우러진 대작인 '메시아'는 특히 클래식 팬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합창곡 '할렐루야'가 유명하다.

이탈리아 전통 오페라와 영국 성가, 독일 수난곡 등을 융합한 '메시아'는 '예언과 탄생', '수난과 속죄', '부활과 영생'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협연하며 소프라노 김방술, 알토 전진, 테너 한용희, 베이스 나유창씨가 출연한다. 문의 062-510-9343.

같은날 오후 6시 문예회관 소극장에서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단장 박호진)이 104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즐거운 합창'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잔잔한 선율과 멜로디가 인상적인 '아기나무', 깜찍한 안무가 돋보이는 '동요 속으로' '컴퓨터', '생각해봐' 등 동요로 문을 연다.

또 지난 11월 무대에 올려 박수를 받았던 정율성 선생 소재 창작 뮤지컬 '우리들의 축제' 중 '출발이다', '망향가' 등을 갈라 형식으로 선보인다.

광주 사랑의 부부합창단과 광주아버지 합창단이 찬조출연한다. 문의 062-529-11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환기 화백 작품 6점 광주 전시

롯데 갤러리 이어 서울 순회전 … 작가 30명 작품도

김환기 작 '무제'

한국 근대 회화의 선구자 수화(樹話) 고 김환기 화백(1913~1974)의 작품 6점이 광주에 전시된다.

신안군은 오는 5일까지 롯데 갤러리에서 김 화백의 작품과 그를 기리는 후배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김환기 국제미술제'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의 스케치 작품을 비롯해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그려진 김 화백의 후기 작품 6점을 선보인다.

또 지난 7월 김 화백의 고향인 신안 일대에서 작품을 창작한 정창화, 나현, 신흥우, 최근일, 전정호, 강홍구, 이정록씨 등 20여명의 국내 작가와 독일의 스테파니 등 유럽작가 10여명의 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이들 작가들은 '공명하는 동서문화'를 주제로 회화, 사진, 설치 등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펼쳐보인다.

한편 이번 전시는 서울 갤러리 이앙(오는 16~22일)과 베를린 갤러리 쿤스트라움(kunstraum·2010년2월18일~27일)에서도 잇따라 열린다.

문의 062-222-007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다문화가정 아이들 작품전

잠월미술관, 12일 나비골작은도서관

'동영이와 천년안샘'

함평 잠월미술관은 12일 해보면 나비골작은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꿈꾸는 클레이 창고'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잠월미술관이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9개월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을 결산하는 자리이다.

이들 아이들은 매주 한 차례씩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찰흙으로 인형을 만들어 촬영하는 방식인 클레이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들었다.

또 줄거리도 스스로 짰고, 광주시청자미디어 센터의 도움을 받아 직접 음성 녹음을 해 작품을 완성했다.

공동 창작품인 '동영이와 천년안샘'은 천년 동안 마르지 않는 샘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고, '웃는 얼굴로 약초캐기'는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초를 찾아나서는 효자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날 전시에 소개되는 애니메이션은 DVD로 제작돼 관람객들에게 나눠준다. 문의 061-322-671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